

전남 양식 어민들 추석 앞두고 '3중고' 시름

고수온 집단 폐사·일본 오염수 방류에 인건비·사료비까지 인상 "수입 30% 줄었는데 생산비는 20% 올라"…수산업계 타격 심각

민족 대명절인 추석 대목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전남 양식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고물가에 생산비가 올라 수입이 감소하는데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격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수·완도·진도 등에서 고수온으로 양식수산물의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어수·완도·진도 153개 어가에서 11개 양식어종 645만여 마리가 집단폐사했다.

재산피해만 100억원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집단폐사의 원인은 고수온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어수지역 122어가에서 600만 마리가 집단폐사해 가장 피해가 컸다. 완도와 진도에서도 피해가 잇따랐다.

최근 고물가에 사료비, 어선 유류비, 전기세, 인건비 등의 생산비가 오른데다 고수온 집단폐사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업계가 위축돼 판로가 좁고 있어 어민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어수에서 20년째 우럭을 양식하고 있는 우성주(50)씨는 "잇따른 고물가에 인건비, 사료값, 양식 어선 기름값 등 전체 생산비도 3년 전 대비 20% 이상 올라 수입이 계속 줄고 있다"며 "여기에 양식중인 우럭 30t 중 18t 가량 폐사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우 씨는 "고수온 폐사 피해뿐만 아니라 올해 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불안감이 커진 국민들이 수산물을 찾지 않으면서 전체 수입이 30%가량 감소했는데 실제 오염수가 방류된 탓에 그나마 남은 우럭이 얼마나 팔릴지도 모르겠

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평균적인 양식 어가(우럭 6만여마리 기준)의 경우, 삼일에 한 차례 2t(200만원 상당)의 사료가 먹이로 들어가고 전기요금과 인건비를 합치면 매일 150~200만원이 들어간다. 한 달에 최소 4500만~6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이다.

우씨의 경우 우럭을 판매할 때까지 드는 총 생산비는 3억원(우럭 30t 기준)에 가깝다. 우럭이 한 차례 밥을 먹을 때 투입하는 2t 가량 사료비와 전기요금·인건비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하지만 집단폐사로 인해 그동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됐고, 그나마 폐사를 피한 물고기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판로가 좁고 있어 어민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완도와 진도에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도군 청산면에서 20년째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위장명(47)씨는 "총 150만여 마리의 전복을 양식하고 있지만 올해 고수온 현상으로 인해 전복이 절반 가까이 폐사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의 영향으로 전복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인하되고 출하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수온으로 집단폐사까지 덮쳐 경영난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다.

위씨는 "전복은 해수온도가 28도 이상이면 폐사가 시작 되는데 지난 7월 28일 전남 전해역에 고수온 특보가 발효되고 지금까지 특보가 이어지고 있어 집단폐사가 발생했다"며 "완도에서 최근 전복 양식어가들의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다 망하게 생겼다"고 답답해 했다.

진도군 저도에서 16년째 전복 양식업을 하고 있는 김시흥(38)씨도 "진도에서 오랫동안 양식장 운영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과 전남도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완도군 보길도 전복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폐사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을 하며 고수온 폐사 걱정을 단 한번도 해본적 없었는데 올해 고수온으로 전복이 3분의 1이 폐사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매년 1~2만원 정도 인상됐던 인건비가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대폭 올라 지금은 5년 전

보다 한달 평균 인건비가 19만원 가량 인상됐고, 고물가로 사료비도 지난 두달간 10%가량 상승해 생산비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추석을 앞두고 피해가 발생해 추석 나기가 무섭다"고 걱정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사무장 병원' 운영 부당იდ득 현직 경찰관 검찰에 송치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순천경찰서 소속 A 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 경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남의 한 지역에서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A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운영 중인 병원이 입주한 건물을 사들였을 뿐이며 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공익신고와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사무장 병원이란 무자격자가 의료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청 직원 3명 성매매 혐의로 수사

광주시청 직원 3명이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청 5급 공무원 1명, 6급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최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이들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찰은 이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성매매를 알선한 업소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5·18공로자회 공금 횡령 등 비리 의혹 수사 받는다

감사위원이 전·현 간부 6명 고소 보훈부는 공법 3단계 다음달 감사

최근 특정 5·18공법단체의 자체 감사 결과로 드러난 공금 횡령, 후원금 무단 사용 등 비리 의혹(9월 8일자 광주일보 6면)이 결국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5·18공로자회 감사위원 2명은 지난 11일 5·18공로자회 전 간부 직원 A씨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변조, 사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A씨 등이 국가보조금을 유용해 채용 이후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운전원 두 명에게 총 1056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

다. A씨가 5·18공로자회 서울지부 법인카드를 유용해 지부 운영비 국가지원금 200여만원을 횡령하고, 부산지부에 "국가보조금을 줄 테니 다른 사건의 합의금을 분담해달라"는 등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국 5·18공로자회장 또한 지난 4일 5·18부상자회 전 간부 직원 B(62)씨가 5·18공로자회 운영에 개입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며 횡령,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일부 5·18공법단체의 고소·고발과 맞물려 국가보훈부도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계의 보조금 지출 내역, 수익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0월 중 5·18 공법 3단체를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5·18단체들이 지난해 3~5월 공법단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받는 감사다.

보훈부는 지난 2년 동안 보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가보조금을 공법 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금액이 투명하게 지출됐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그동안 5·18단체들은 총 34억 188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5·18유족회 9억 8100만원, 5·18부상자회 16억 8100만원, 5·18공로자회 14억 2100만원 등이다.

보훈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황일봉 5·18 부상자회장 고소 당해

본인 징계 여부 논의하는 상벌위원회 회의 방해 혐의로

상벌위 관계자가 고소

황일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상벌위원회 회의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1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관계자 A씨는 이날 황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황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민주화운동교육관에서 열린 5·18부상자회 상벌위원회 회의의 출입문을 강제 개방하고 고성을 지르며 30여분 동안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벌위원회에서는 황 회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징계하는 안건을 논의 중이었다. 징계 사유로는 황 회장이 이사회 논의 없이 국가보훈부 직원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정윤성 역사공원" 설립을 반대한다는 신문 광고를 게재(8월 29일자 광주일보 7면)하고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 독단적인 운영을 했다는 점이 거론됐다.

A씨는 황 회장이 잠겨 있던 회의실 문을 강제로 방했기 때문에 견조물 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일보가 황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시90일만)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등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온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온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